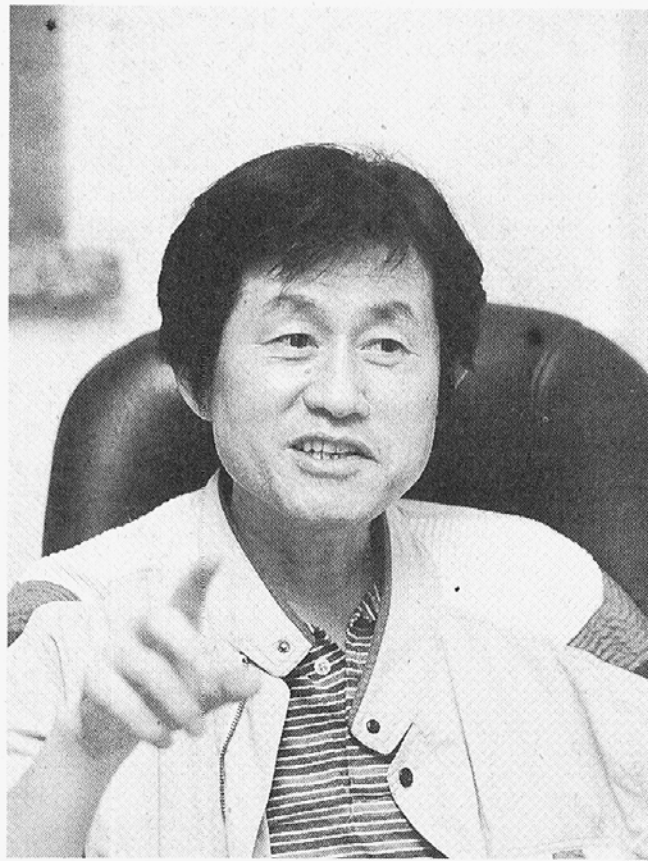


“연극은 삶을 퍼올리는 두레박질”

산문박의 禪

연출가 김상렬 씨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연극입니다. 연극이 일단 기획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자 빈 공간 무대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렵고 두려운 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쟁이로 30년을 살아온 김상렬씨(55, 극단「신시」 대표)는 연출이라는 일을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일로 비유했다. 연극이라는 우물은 퍼도 퍼도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그는 일단 퍼올린 냉수로 갈증을 면해 보지만 또 다시 타는듯한 목마름 때문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또 두레박질을 해대는 것이다.

김상렬씨는 30년동안 60여편의 연극을 연출했다. 「연행이곡마단」, 「종이연」 등 20여편은 직접 쓴 자작희곡이다. 무대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릴 정도로 타고난 언어감각을 공인받고 있는 그가 일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연극적 재미’이다.

“너무 철학적·현학적인 것은 관객이 외면합니다. 연극만의 독특한,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있는 인상을 통해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요즘 TV와 영화 등이 고도의 첨단 매커니즘을 동원 대중에게 다양한, 감각적·철학적 재미를 제공하고, 대중오락 등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지만 그럴수록 ‘연극’의 자리가 중요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 인류가 생긴후 가장 오래 빛해온 예술종 하나인 ‘연극’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예술성을 활성화시킨다면 연극에서 느끼는 재미는 그 어떤 예술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

구룡사 지하 소극장 열어

여름 못지않은 더위를 내뿜는 요즘 그는 가을에 공연할 마당극 「용고집전」 원고 마무리에 여념이 없다. 극단 「미추」에서 해마다 공연한 마당극을 극단 「신시」가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다. 용고집

관객은 부처님이란 생각에 ‘막 올리기’ 혼신 30년 동안 60여편 연출 ... ‘무대 언어 연금술사’

전만 마당극 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지만 단순한 재미 외에 ‘인과응보’라는 불변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마른 땅에 물이 스미듯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 주는가가 지금 그에게는 화두이다.

구룡사 지하에 소재한 극단 「신시」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충전됨을 느낀다. 90년 정우수님의 배려로 구룡사 지하에 극단 사무실과 소극장이 마련될 때만 해도 불평하지 않았으나 일부의 격정과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시’가 구룡사 지하에 동지를 틀게 될 것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지탱해줄 본질적인 두 요소-종교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됨을 기뻐했다.

위의 방담에서는 우주와 삶의 진리를 제시하는 법회가 수시로 열리고 동시에 지하에서는 신산하고 각박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연극이 열린다는 것은 혼치 않은 인연이다. 또 萬분의 부처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세상 그 어느 백(?)보다도 든든한 백(?)을 느낀다.

“연극이야말로 절대 반복이 있을 수 없는 예술입니다. 배우의 컨디션, 음향뿐 아니라, 손짓 하나, 그날 그날의 관객들의 반응 하나하나로도 미묘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연극의 매력입니다. 고도의 압축성과 상징성으로 인간이 직접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는 연극은 그 어떤 예술보다 큰 감동을 주게 마련이지요.”

65년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그는 총무로 영화관에 뛰어든것으로 끝내 흑흑한 좌절을 맞는다. 그는 강원도 삼척 탄광의 막노동관에 뛰어든다. 그러나 거기서도 적응을 못한다. 육체가 견디지 못한 것이다. 이어 남동생의 견사와 누나의 자살, 그리고 아버지의 암으로 인한 죽음... 참담과 좌절속의 그에게 다가온 것이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선다’는 진리였다. 지독한 절망과 비극의 막다른 골목의 그에게 비로소 절망의 끝에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다가온 것이 ‘연극’.

1년 선배인 이승규씨(현 인천시립극

단장)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극단 「가교」 창립에 참여한다. 그때가 1967년. 버림의 끝에서 잡은 연극, 이후 연극과 의 처절한 공방전을 계속해 온다. 가교 시절 10년동안 그는 극본, 연출뿐 아니라 조명, 녹음 심지어는 막 올리고 내리는 것까지 온갖 잡역을 도맡아 했다. 지방공연, 계동연극도 많이 했고 소년원, 교도소에서도 수많은 막을 올렸다. 많은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내리면서 인생은 한바탕의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허깨비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망으로 텅빈 마음속을 어느덧 채워주었다 지 모른다.

야외 불교뮤지컬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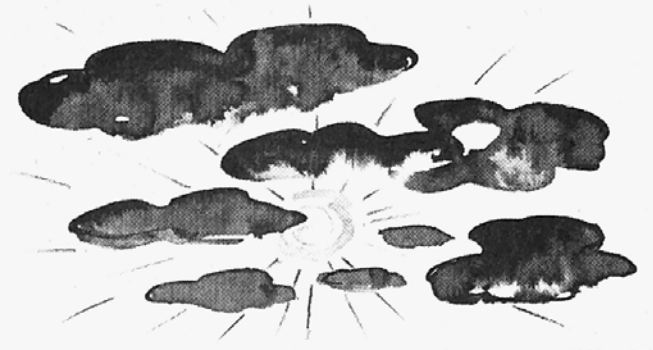
“연극은 사람을 다루고 인생을 다루는 것이기에 연출하는 사람도 출연하는 사람도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고양되지 않고는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 늘 간직래온 철칙이다. 연극인 스스로 풍부한 인간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지론이다.

가교시절 이후 현대극장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극내 뮤지컬을 개척한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에비타」, 「사운드 오브 뮤직」, 「올리버」, 「푸리」, 「뽀롱 뽀롱」 등 뮤지컬로 한 ‘님의 침묵」, 「그날이 오면」 등 창작 뮤지컬도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번지없는 주막」, 「홍도야 울지마라」 등 악극을 무대에 올려 한 극적 창작뮤지컬 개발도 시도했다.

김상렬씨는 대형 불교뮤지컬을 야외에서 공연하고 싶다. 그는 머리끝은 스님이 꼭 나와야 된다고 계속 읊는 대가나 하는, 고풍한 편견을 거부한다. 청바지를 입은 배우가 나와도, 재즈를 삽입해도 보고난 후 관객들 가슴에 정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끼게 해주는 연극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연극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배우나 탈린트 중에 불자를 많아요. 그 사람들과 염주처럼 하나로 꿰어져 연젠가 진짜 불교연극 한번 해볼 생각예요.”

이경숙 기자



심화·이기선

중생은 춤추는 오온 덩어리

인간은 무지의 오온인가, 아니면 깨달음의 범성인가. 쉽게 보면 인간은 무지한 것으로 보인다. 욕망이 아니 불어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다. 눈 귀 코 입 몸 마음, 모든 곳에 욕망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으로 살려고 한다. 때로는 욕망이 삶의 활력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삶의 욕망이 강하면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요새 쓰는 말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생은 춤추는 오온 덩어리 라는 집사로 삼았다. 주인은 경이 들고 입구에 충실한 거지 아들을 종국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의 잃어버린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경설은 공자유(窮子喻)이다. 경설은 공자유(窮子喻)이다. 경설은 공자유(窮子喻)이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32

불성(佛性)

그러나 그 안을 살펴보면 잘 나가는 사람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관 잘 나가면 된다고 하는 속인적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

청정한 불성이 나의

것을 욕망의 달음박질로 생각해 보면 잘못될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잘 들어오는 쪽으로 마음을 회전시켜야 할 것이다. 들어오는 마음은 가라 앉는 마음이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라

〈법화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부모 곁을 떠나 형편없는 거지가 되었다. 거지중의 상거지가 되어 저도 모르게 부모가 살고 있는 곳으로 얻어 먹으러 갔다. 부모는 그 거지가 한 눈에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마음을 내어 도와주려 하였으나 거지는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났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라.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음까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부모는 하인을 시켜, 달려 데려오게 하여 뒷간을 치우는 고용인으로 삼았다. 얼마가지 아니하여 마당 마루 안방을 청소하게 하고, 가게

오온의 덩어리가 온갖 방편에 의하여 한 세상 잘 살았다 하지만 허공속에 날려보낸 안개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는 실체나 실상이 있을 수 없다. 전도봉상을 입정현실하여야 한다. 견성진여하는 것이 입정현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온의 덩어리 속에 진여성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오온의 덩어리란 밖으로 나뉘거나 평가치려면 전도봉상의 도깨비 춤을 추지만 그것을 실상의 정법으로 각인시키면 묘용의 무애춤을 추게 될 것이다.

업장소멸 능력 있어

사람은 밖으로만 뛰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마음 먹으면 삼태의 여러 방에서 진실한 실상을 찾을 수도 있다. (법화경)의 얘기에 나온 거지가 한 평생 고향에 찾아들지 못하였다면

우리걸식으로 낯선 거리에서 힘

고향

사색사하여 씩은 풀더미처럼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향에 찾아와 부모를 만나고 사람구실을 하고 아들이 되어 거부장자가 돼 만년을 행복하게 살게 되었었다. 우리는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 고향이 무엇인가. 본성정착이고 여래불성이다. 중생은 무지의 오온인가, 아니다. 중생은 오온을 깨침으로 환치하거나 전식(轉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본래부터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은 업장의 먹구름에 쌓인 날벼락이 아니다. 중생은 업장의 먹구름을 날려 보내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 바람으로 무명구름을 날려 보내면 광명과 같고 바로자나와 같은 여래장불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각증하게 될 것이다. 중생이 성불한다는 논리는 중생의 오온덩어리가 보리의 오온덩어리로 숨겨져 있음을 비밀장한 것이다.



제·원·스·님·에·세·이

고직한 산사(山寺)에서 우리가 사는 도심(도심)까지 배달되어 온 마음의 소포. 그것은 제원스님의 흠뻑 언어, 귀란 감동 에세이집!

우리는 가끔 열라대왕이 보내는 엽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녹슨 우체통을 열어본다. 누군가, 저 멀리서 독자의 언어를 내뿜고 있다.

- ▶ 산길을 담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 행복찾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 큰 정치를 위해 군살을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 무소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 절망과 희망의 징검다리 가 있습니다.
- ▶ 혼자 사는 이의 조출한 뜻이 있습니다.
- ▶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 책은 BBS불교방송 <불국토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쏟아놓은 언어들이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한뼘쯤 체어 걸른 것처럼, 영혼을 내뿜은 진한 감동의 에세이집이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값6,000원 TEL(02)711-8948, 1868/FAX(02)711-1859 **이독**

성아출판 TEL 778-6826 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내가 도를 지켜 큰 지비를 행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주던데다 그대가 재물을 탐하기 때문이고, 웃음을 주던데다 그대가 다른 사람을 놀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가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 라즈니쉬의 역 권규우 이강욱 옮김
신국문 전2권 각권 1,500원